



밭기반정비의 필요성과 현황

허 유 만
(농림수산부 기반정비과장)

WTO체제의 출범을 맞이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은 이제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은 아직 이러한 세계의 조류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유규모의 영세성, 경지정리를 비롯한 생산기반시설의 미비, 농촌 생활환경의 열악 등 선진국의 농업여건과 비교해 볼 때 자신있게 내놓을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업경제의 발전과 함께 농촌인력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가인구는 '70년도에 1,442만명 이었던 것이 '94년에는 517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게다가 50세이상의 농가인구는 225만명으로 43.5%를 차지하며 이중 여성이 124만명으로 55%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을 만큼 농촌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었고,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하여 3~4배나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등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의하여 밭농사는 거의 도외시 되어왔다.

신선도와 맛, 향기 등을 유지하여야만 경쟁할 수 있는 채소, 과일, 꽃 등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확보를 위하여는 밭도 기반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논에 비하여 너무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며, 70년대 이후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밭의 많은 부분이 다른용도로 전환되거나 고미가정책에 힘입어 논으로 지목변환되어 '93년까지 연평

균 13천ha의 밭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이 기간동안 전국의 밭이 약 30%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작물의 재배동향을 살펴보면 쌀, 보리, 콩 등 식량작물은 '84년의 491천ha에서 '93년의 233천ha로 크게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배추, 토마토, 오이 등의 시설채소와 과수 등은 고소득 밭작물의 선호에 의하여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근교 지역에서는 화훼, 채소 등 시설작물이 논에 식재됨에('94년말 현재 45천ha) 따라서 쌀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쌀의 자급기반을 크게 잠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논에 재배되는 밭작물을 밭으로 이동촉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밭은 대부분 표고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토심이 얇고 경사가 급하여 용수 확보와 밭 경지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적지선정이 곤란하고, 중산간지에 위치한 밭에 물리적 개조를 가함에 따른 배수체계 변경으로 하류부 논에 대한 피해방지와 지구내 밭이 표토보존과 토양유실을 막기 위하여 초생대설치 및 하류쪽에 상당한 범위의 배수시설과 침사지 설치 등 재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경사면에 농로를 설치하게 되어 유지관리와 유실방지를 위하여는 포장이 필수적이며, 관개방식에 있어서도 논은 단일작목으

로 관개계획수립이 용이한 반면 밭은 재배작목이 다양함에 따라 생육시기, 관개시기, 관개수량 등이 작목별로 상이하여 물이 필요한 시기와 수량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관개계획 수립도 어렵고 진입로, 경작로 등의 농로, 암반관정, 용수공급시설, 배수로, 발경지정리 등 사업내용도 복잡 다양할뿐더러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밭의 필지마다 지력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정비 후 환지정이나 교환·분합에 어려운 점이 많아 논경지정리 보다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

밭에 대한 기반정비가 이루어지면 밭작물의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된 생산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유지를 할 수 있고 논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설채소단지를 밭으로 유인하므로서 수도작 적지를 논으로 보전토록하고, 소득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는 등의 여러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1994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밭 766천ha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된 밭 110천ha를 밭기반정비사업의 1차적 대상으로 정하고 '94년도부터 처음으로 3천ha의 밭에 대하여 농로설치, 암반관정개발, 용·배수시설설치,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를 시작하여 '95년까지 5천5백ha를 추진하였으며 '96년도에는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95년의 2배나 되는 5천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목표를 대폭 확대 조정하는 등 사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은

첫째, 사업비 단가가 낮아 급수공을 필지별로 설치하여야 하나 3~5개필지에 1개를 설치하거나, 농로의 길이와 폭을 축소 시행함에 따라 영농급수에 불편을 주거나 원활한 통행

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등 사업수준이 미흡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단가를 상향조정해야 함은 물론 지형, 경사도 등 지역특성별 모델개발에 의한 사업비 소요수준에 맞는 적정단가를 지원하는 방안과 아울러 사업비 절감방안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마늘·양파 등 월동작물 재배지에는 비 영농기가 없으므로 사업추진시 휴경보상 및 작물 보상문제가 야기되며 작물 재배시기에는 공사추진이 어렵고, 암반관정 개발시에는 밭이 고지대에 위치함에 따라서 충분한 채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동절기에는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하여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농업 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처럼 장기 계속공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한다.

그 외에도 사업비부담을 '95년까지는 국고보조 70%와 지방비부담 30%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방비부담 과중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을 기피하는 등 추진에 애로가 있어 '96년부터는 국고보조율은 10%인상 지원하여 지방비부담을 10%경감 조치하였으며 그동안 밭기반정비 사업대상지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을 별도확보하지 못하여 개발비를 활용해서 조사설계를 추진해 오던 것을 '96년부터는 조사비 예산을 별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정도높은 기본조사에 의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부터 2개년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얼마 안되는 사업량 추진에 불과한 초창기 사업으로서 이제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모색하고 사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몇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면

첫째, 사업대상지의 선정시 개발규모가 큰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재배단지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소비성향의 변화에 부응하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기계화 및 시설영농이 가능한 현대화된 생산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규모가 큰 단지화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함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농어촌 마을정비, 시설영농(채소, 화훼, 과수,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발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기반시설로서 압반관정 등 용수개발, 농로개설, 급수시설, 배수로 및 밭 경지정리 등의 시행과 더불어 유리온실, 파이프온실, 육묘장 등의 재배시설 및 예냉시설, 집하장, 저온수송차량 등의 산지유통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농어촌 마을정비, 문화, 복지 및 산업시설 확충 등 농어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사업효과 증대는 물론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발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주민호응도가 좋고 농업생산 영농단체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개발후 재배작목에 대한 영농계획 등 농민의 생산 의지가 뚜렷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 개발여건이 아주 좋은 지구 일

지라도 농민의 영농의지가 없는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 투자효과를 십분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사상누각을 짓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도 부족, 민원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 호응도가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네째, 지형, 경사도, 토양, 토심 등 지역별 특성이 지구별로 각기 다르고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내용이 다른점을 감안하여 선택적인 개발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기존도로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가 입지선정에 유리할 것이다.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품질 좋은 채소, 과일 수요증대 등 국민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며 산업경제의 구조적 낙후성에 따라 소외된 농민의 소득증대와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중산간지의 개발 및 지역환경개선 등을 통한 살기좋은 농어촌,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는 발기반정비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며 긴요한 것인가를 우리모두 다시한번 인식하고, 발기반정비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나, 도·시·군의 사업 시행기관, 농민이 다같이 노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발기반은 조기에 완비될 것이며 농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농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